

2013 경관·공공디자인 정보지

강진그리기

공공그리기

남도답사 1번지 강진, 천혜의 자연경관과 역사와 문화의 숨결이 살아있는 강진, 천 년의 신비가 살아 숨 쉬는 청자골 강진은 강진의 이미지를 잘 표현해 주는 말이다. 이처럼 도시는 저마다 고유한 인상과 느낌을 지니고 있다. 이런 도시의 이미지는 대부분 추상적이지만 도시상징물이라는 특정한 사물을 통해 우리는 구체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 있다. 도시의 상징은 자신이 사는 장소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게 하고 여행객에게는 여행지 선택의 결정적 계기가 된다. 특정 장소 또는 건축물로 활용되는 도시상징물은 성공적인 도시이미지 구축을 위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대표적으로 파리의 에펠탑, 베를린의 곰, 뉴욕의 빅애플처럼 도시상징물의 모습은 도시의 역사와 문화, 환경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상징물은 반드시 위압적인 수직 구조물일 필요도 없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외형에 집착해 디자인한 상징물과 과도한 디자인의 공공시설물을 흔히 볼 수 있다. 도시상징물의 상징성과 디자인에 대한 충분한 고민 없이 설치된 상징물은 오히려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요소로 인식되어 도시의 품격을 떨어뜨린다.

도시상징물을 디자인하는 일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뛰어난 디자인 하나만으로 성공할 수 없고 자체의 특이성, 지역의 문화성, 현실 가능한 기술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또 그 과정 안에서 정치적, 경제적 문제도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설치된 이후에도 도시상징물로서 유지하고 익숙해지기 위해 지역주민의 공감대를 지속해서 이끌어 내야 한다. 이 모든 것을 단번에 만족하게 할 수 없지만, 지속적인 의견수렴과 의사결정 과정을 겪으면서 더 나은 상징물이 나오고 그 과정에서 디자인에 대한 수준 높은 안목과 의식을 갖게 되는 것이다. 공공디자인은 그 자체의 발전만으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 개개인과 집단의 의식 발전이 함께 따라와야 하는 문제인 것처럼 결국 도시상징물도 공공의 의식이 바뀌어야 발전할 수 있다. 일차원적인 상징에서 벗어나 강진의 가치를 진정성 있게 표현할 수 있는 공공의 안목과 디자인적 마인드가 필요하다.





■ 파리_프랑스



■ 베를린_독일



■ 뉴욕_미국



■ 런던_영국



■ 뉴욕_미국



■ 런던_영국



도시 이미지를 위한 '도시상징물'



■ 서울시_‘해치’



■ 전주시 도시브랜드_‘한바탕 전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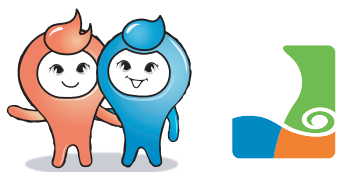
■ 제주도_‘돌하르방’



■ 인천광역시 송도 ‘트라이볼’



■강진군_청자동산



■강진군_캐릭터, 심볼



■보은군_충혼탑, 수직구조물



■강진군_가우도 출렁다리

‘쾌적하게 비우는 노력’

우리가 무심히 걸어 다니는 보도에는 안내표지판, 블라드, 교통신호 제어기 등 수많은 시설물이 서 있다. 무질서하고 과도한 색상의 시설물은 보행을 방해하는 등 가로환경을 저칠고 무질서하게 만든다. 또 이미 어지러워진 가로에는 보행자를 배려하지 않은 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무질서한 시설물들이 세워지고 누적되어 끝없이 채워지게 된다.

공공시설물은 최소화하고 간결하게 디자인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사람중심’의 보행환경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가로시설물이 보행자에게 장애요소, 시각적 공해요소가 되지 않도록 가로를 쾌적하게 비우는 노력이 필요하다.

시설물 외형

공공시설물의 외관을 화려하게 장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의 정체성을 알리기 위해 일차원적인 형태로 무분별하게 디자인된 공공시설물은 오히려 지역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도시의 공해요소가 되고 있다. 공공시설물의 디자인은 과잉되지 않도록 절제가 필요하며 심미성과 기능성을 갖춰야 한다. 공공시설물은 표준화하여 최적화하고 제각기 아름다운 외형보다는 주변과 조화로운 형태와 색상으로 조율해 나가야 한다. 시각적 노출의 정도를 최소화하고 주민의 눈에 지나치게 의식되지 않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시설물 마감

우리는 보도를 걸을 때 시설물과 보도와의 거친 마감처리를 쉽게 볼 수 있다. 보도 위로 노출된 콘크리트와 볼트는 쉽게 오염되어 가로의 미관을 훼손하고 아이나 노약자에게는 보행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된다. 바닥면과 시설물의 접합 부분은 수평을 유지하고 시설물의 볼트가 보도 위로 나오지 않도록 섬세하게 설치해야 한다.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작은 부분이지만 거친 시설물이 가로와 가로 위의 보행자들에게 주는 영향은 매우 크다. 거리에 노출되는 시설물들이 하나씩 모이면 도시의 품격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런 작은 차이들이 쌓여 우리의 경관이 달라진다.



■ 블라드



■ 블라드



■ 교통신호제어기



■ 소화전



■ 소화전

쾌적한 가로를 위한 '공공시설물'



■강진아트홀 표지판의 마감처리



■강진읍 도로시설물의 마감처리



■ 프랑스 파리 안내표지판



■ 통합안내표지판



■ 전선배치함



■ 벤치형 전선함

‘걷고 싶고, 머물고 싶은 거리’

도시의 공적인 공간인 거리는 지역민들에게 항상 열려 있고 자유로이 오갈 수 있는 공간이며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자 만남의 장소이다. 거리의 풍경을 보면 지역민의 일상생활을 엿볼 수 있고 그 도시의 역사와 문화를 알 수 있다.

현재 강진읍내 거리는 어떤 모습일까. 뽕뽕한 빌딩 숲 사이처럼 숨 가쁘게 돌아가는 도심의 거리 모습은 아니지만, 사람들에게 감성과 여유를 불어넣어 주는 걷고 싶은 거리의 모습이라고 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 보도보다는 차도를 보행보다는 교통을 먼저 생각하여 보행자의 ‘배려’가 부족한 길은 우리의 일상을 여유 없이 만드는 원인의 하나이다.

디자인이 잘 된 거리를 거닐다 보면 어느새 그 도시가 지닌 역사적 정취와 향기에 심취하게 된다. 가로와 풍부한 녹시율과 보행 환경은 산책하고 싶은 욕구를 절로 일으키고 그 안에서 사람들은 걷고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휴식한다.

보도를 디자인하는 것은 도시의 밑바탕을 그리는 일과 같다. 보도 위의 건축물과 시설물이 조화를 이루려면 군더더기 없이 디자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사람은 편안하게 거리를 걸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거리는 모든 사람에게 불편 없이 제공되어야 한다. 사람과 환경에 대한 ‘배려’를 강조하여 기능성과 심미성을 갖춘 아름다운 거리는 거닐고 싶고 머물고 싶은 길이 된다.

우리 강진에는 그 어느 지역에도 뒤지지 않는 아름다운 전통과 훌륭한 문화유산이 있다. 이제 우리도 우리의 문화와 감성이 담긴 거리를 디자인해야 한다. 사람을 배려하고 역사·문화와 조화를 이루는 길을 걷게 될 때 우리의 삶도 여유롭고 풍요로워진다.



■ 덕수궁_돌담길



■ 프라이부르크_독일



■ 강진읍_영랑로

‘도시 인상을 형성하는 간판’

현재 도시는 수많은 사인과 간판으로 가득 차 있다. 이로 인해 꼭 필요로 하는 곳을 찾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고 도시 전체를 어지럽혀 미관을 해치기도 한다. 사인과 간판이 도시의 공해요소가 되어버린 것은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사인과 간판만을 강조하려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사인과 간판은 수량이 많고 배치가 자유로워서 도시의 인상을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혼자만의 이익을 위해 크고 요란하게 설치한 간판으로 인해 더 잘 보이기 위한 간판들의 경쟁이 시작되고 대중이 함께 공유해야 할 거리는 무질서한 간판들로 혼잡하게 된다. 또 가로에 체계 없이 설치된 사인은 무질서한 간판과 함께 도시의 시각공해를 가중시킨다. 이렇므로 간판과 사인은 정보를 제공하는 수단임과 동시에 공공에 노출되어 가로의 경관을 크게 좌우하는 요소임을 인식해야 한다.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의 간판이 거리의 예술품이 되어 우리의 눈길과 발길이 머물게 하고 영국 브리스톨의 사인체계가 살기에 쾌적하고 방문하기에 부담감 없는 도시로 탈바꿈했듯이 개선된 간판과 사인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이루는 첫 번째 과제이다.

좋은 간판디자인은

건축물을 배경으로 활용하고 대중을 고려한 절제된 색채로 주변과 조화로워야 한다. 광고의 내용을 최소화하여 의미를 분명히 하고 상점만의 개성과 특징요소를 개발한다.

좋은 사인디자인은

지역민과 관광객 모두를 위한 이용자 중심으로 디자인되어야 한다. 사인은 통합하고 표준화하여 가로를 최적화하며 절제된 색채로 주변과 조화로워야 한다. 불필요한 정보표기나 장식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 잘츠부르크_오스트리아



■ 프라하_체코



■ 브리스톨_영국



■ 인천_송도



■ 강진



■ 속초

공공을 위한 ‘간판과 사인디자인’



■강진읍 가로



■강진읍 도로변 광고물



■강진읍 도로변 안내표지판



■미량면 도로변 광고물



■강진읍



■군동면



■대구면 고바우공원



■성전면



■성전면

강진그리기

광고도 마찬가지로.

강렬한 카피와 현란한 비주얼과 음악을 동시에 던지면
결국 메시지는 전달되지 않아요.
한 가지에 집중하고 어딘가는 비워야 하죠.
그래야 소통이 이루어지거든요.

—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박웅현, 월간문화재 사랑 —







나무를 하거나 장을 보러 다니던 사람들이 쉬어가던 곳이었다고 하는 고바우 공원. 그 안의 고바우 전망대 분홍나루는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 크게 드러나지 않는다. 건축물이 수직으로 우뚝 솟아있지도 화려한 색상을 하고 있지도 않아 자칫하면 그냥 지나칠 수 있다. 주변 자연경관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강진만의 아름다운 경관을 전망할 수 있게 해주는 모습이 매력적이다. 자연을 배려한 디자인으로 주변 경관을 고려한 스카이라인과 디자인이 강진의 품격을 높여준다.

카페 분홍나루는 기존의 답답한 전망대와는 달리 따뜻한 감성이 곳곳에 녹아있는 여유로운 공간이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사방으로 펼쳐지는 강진만의 풍광을 바라보면 일상에서의 스트레스를 잠시나마 잊고 마음의 풍요를 느낄 수 있다. 요즘 유행하는 단어 '힐링'이 생각나는 장소이다.

“고바우전망대,
혹시 그냥 지나쳤나요?”



도로 자전거 도로

‘자전거 도로에서 만난 강진만의 갈대소리’



강진읍~도암면 해창~신전면 사초리까지 왕복 50km 구간으로 조성된 강진만 자전거도로.
철새들의 보금자리와 갈대밭 사이로 펼쳐지는 신비한 자연생태를 느껴볼 수 있는 친환경 코스로 청정해역
강진만의 아름다운 경관을 가장 가까이에서 느끼고 조망할 수 있는 공간이다. 바람에 부대끼는 갈대 소리
와 함께 싱그러운 공기를 들이켜며 자전거 페달을 밟을 수 있다. 바닷바람에 흔들리는 사각사각 갈대소리는
그동안 일상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한숨에 정화해주는 자연 치유제가 된다.

겨울을 나기 위해 찾아온 강진만 고니와 인사하고 해 질 무렵 노을지는 강진만의 풍경을 바라보며 강진의
아름다운 매력에 다시 한 번 빠져본다. 승차감 좋은 자동차나 높은 전망대였다면 느껴보지 못했을 자연경
관을 이 작은 도로에서 만날 수 있다.



도시둘러보기

“출장 다녀왔습니다”

강진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경관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발굴·개선하여 우수한 경관을 가꾸어나가고자 군에서는 경관개선전문보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군 공직자들의 국내외 출장 시 직접 그곳의 경관을 돌아보고 우리 군 경관에 적용하고자 소개한 우수사례를 살펴보자.

일본 이바라키 현 류가사키 시



■ 안내표지판

‘캐릭터 방향표지판’

방향을 알리는 캐릭터 조형물이 삭막한 거리를 경쾌하게 만든다. 특색에 맞는 공공공간에 재미요소를 넣는다면 그곳을 찾는 방문객에게 웃음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소화전함

‘소화전 활용 대피소 안내’

소화전의 뒷면을 인근 지역 안전지대(대피소) 안내판으로 활용하였다. 이용자를 고려하여 뒷면을 비스듬해 보기 불편함 없이 제작하였고 주변 환경과 조화롭다. 안전과 안내 역할을 통합하여 가로시설물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돋보인다. 오감누리타운 등 안내판 디자인에 반영하면 좋을 것이다.



■경관등

‘주변과 조화로운 경관 조명등’

숙소 앞 정원의 조명등은 주변의 시야를 방해하거나 눈부심이 없도록 식재 높이에 맞춘 디자인이 돋보인다. 모란공원 등 공원 내 조명디자인에 반영하면 좋을 것이다.

일본 시마네 현

‘벤치’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의 벤치는 자연공원의 주변 환경과 잘 어울린다.



■유시엔 정원 벤치

‘주변환경과 조화로운 자연석’

우리 주변에는 마을 명칭 등 인공석을 활용한 표지판을 쉽게 볼 수 있다. 대부분 공장에서 막 찍어낸 듯 기계적인 느낌이 강해 주변과 조화롭지 못하고 경관을 훼손시킨다. 시마네 현의 자연석은 자연스러운 물성 그대로가 묻어나 주변 환경과 매우 조화롭다. 모란공원 등 공공공간에 자연석을 세울 때 좀 더 주변 환경과 조화로우지를 고민한다면 좋은 경관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유시엔 정원 자연석

강원도 속초시, 강릉시

‘속초, 로데오 거리만의 가로시설물’

‘신호등, 표지판, 화분대를 하나로 통합한 가로등, 가로수 보호대 겸 벤치’와 같이 로데오 거리 조성 시 가로의 장애시설을 최소화하고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고민한 흔적을 볼 수 있다. 가로시설물 설치에 앞서 보행자를 배려하는 디자인이 돋보인다.



■속초시 로데오거리 가로시설물

‘강릉 금성로 걷고 싶은 거리’

차도와 보도 사이엔 가로화분과 실개천이 조성되어 쾌적한 가로환경의 보행자 중심 거리가 되었다. 다소 인공적인 느낌이 들지만 넓어진 보도와 쾌적한 가로시설물은 침체된 가로에 활기를 주기에 부족함이 없다.



■ 금성로 걷고 싶은 거리

‘전선 배전함이 매력적인 정크아트로’

가로를 조성하면서 커다란 배전함은 점포주의 기피 대상이며 민원 야기의 근원지로 가로의 흉물이 되었다고 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크아트(폐품을 활용한 아트) 개념을 도입하여 하나의 작품으로 승화시켰다. 가로를 또 하나의 문화전시공간으로 탄생시켜 시민들에게 즐거운 볼거리를 제공한다.



■ 전선 배전함

통영시, 부산광역시 - 벽화마을프로젝트

통영시 '동피랑벽화마을'

구불구불한 오르막 골목길을 따라 담벼락에 벽화들이 그려져 있다. 철거 예정지였던 동피랑마을은 2006년 통영지역 시민단체가 마을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열면서 상황이 바뀌었다고 한다. 달동네는 바다를 배경으로 한 벽화마을로 하루 3천 명이 찾는 통영의 관광명소가 되었다. 단순히 예쁘게 꾸며 놓은 벽화는 구경꾼의 구경대상으로 전락해버리기 일수지만 동피랑벽화마을은 갤러리와 공관점, 상점 등을 운영하여 외부인들로부터 경제적인 이익을 얻고 있다. 그 이익의 일정부분 주민들과 함께 나누어 쓸 수 있도록 하여 우리나라 벽화마을 프로젝트의 성공사례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는 마을기업으로 선정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감천문화마을'



부산의 달동네를 지역 예술가들과 학생, 주민이 힘을 합쳐 조형물과 벽화로 마을을 꾸며서 문화마을로 재탄생했다. 기존의 개발과 건축이 아닌 보존과 재생이라는 개념에 맞춰 국내외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다. 마을 중간, 중간에 쌈지공원, 쉼터, 카페 등이 함께 조성되어 주민들이 함께 공유하며 소통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골목길에서 만난 주민들은 감천문화마을의 즉석 해설사가 되어 생생한 마을이야기를 들려준다.



일본의 아트섬, 나오시마

‘예술작품으로 변신한 외딴 섬마을’

시코쿠 가가와 현의 나오시마는 ‘예술의 섬’이다. 좁고 오래된 섬마을에 들어서면 사진 속에서 봤던 야요이 쿠사마의 붉은 호박이 해변에 놓여 있다. 포구 앞 목욕탕 역시 실제 공중목욕탕을 개조해 예술적으로 꾸며졌다. 낡고 오래된 집들은 예술가들에 의해 현대작품으로 재탄생했고, 바다를 캔버스 삼아 건축미가 도드라진 미술관들이 들어서 있다.



나오시마는 한때 구리제련소가 있던 세토내해의 외딴섬이었다. 인구 3,500명이 전부였던 작은 어촌 나오시마에 들어온 산업화의 물결은 사람과 자연, 모두를 황폐화시켰다.

1990년 초반까지도 이 섬에는 산업폐기물이 넘쳐났고 철과 구리 제련소에서 나오는 유독가스 때문에 원주민들이 하나둘 섬을 떠나고 있었다.

90년대까지만 해도 아무도 찾지 않던 낯선 작은 섬에 일본의 베넷세 그룹과 예술인들의 손길이 닿으면서 변신이 시작됐다. 베넷세 그룹은 황폐해진 섬을 아름다운 예술의 섬으로 만들기 위해 건축가인 안도 다다오와 손을 잡고 본격적으로 나오시마 재생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당초엔 뜬금없는 미술관에 주민들의 관심이 없었으나, 주민들을 초대하고 섬 전체를 이용한 현대미술전, ‘집 프로젝트’ 등을 계속하면서 서서히 주민들의 이해를 얻게 되었다. 현재는 일본을 대표하는 아트 프로젝트 및 지역재생 프로젝트의 성공사례가 되었고, 한해 수십만 명의 관광객이 찾을 정도로 유명한 섬이 되었다.

‘집 프로젝트’는

나오시마 혼무라지역에서 전개하는 아트프로젝트이다.

현재도 생활이 이루어지는 지역에 오래전부터 있던 집을 리모델링하여 사람이 살았을 때의 시간과 기억을 섞으면서 공간 자체가 작품화되는 작업이다. ‘자연과 아트’에서 ‘사람’에 초점을 맞춰 생활권 안에서 전개해가는 이 프로젝트는 나날이 변해가는 유기적인 프로젝트로 성장해가고 있다.



‘안도 다다오의 숨결이 깃든 건축물’

건축가 안도 다다오에 의한 설계한 지중미술관은 세토내해의 아름다운 경관을 망가뜨리지 않도록 건물 전체가 땅속에 감추고 있다. 안도 다다오는 지형을 먼저 파악하고 그 지형에 맞추어 건축물을 설계해 자연의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조화를 이루어 내는 것이 특징인데, 지중미술관은 ‘자연과 인간을 생각하는 장소’로서 2004년에 설계됐다. 안도 다다오가 설계한 숙소, 미술관 등은 바다를 캔버스 삼아 이국적인 자취로 섬을 단장한다. 건물 안팎에는 앤디 워홀 등 현대미술 거장들의 작품들로 채워져 있다.



관광객들은 천천히 마을길을 거닐거나 자전거를 빌려 골목을 누비면서 그 안에 숨은 현대작품들을 만나게 된다. 섬마을의 공간 하나하나에는 그 곳의 문화와 예술을 담으려는 노력이 깊게 스며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던 외로운 섬이

이제는 수십만 명이 찾는 예술의 섬으로 변화한 나오시마’

농어촌의 인구감소는 불가피한 사회현상이지만 시대의 흐름을 바꾼 나오시마의 도시디자인은 우리에게 귀감이 된다.

※ 참고자료

논문_공공디자인의 관점에서 본 국내 도시상징물의 조성경향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정옥주 서울대학교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

도서_나오시마 디자인 여행, 정희정 저, 안그라픽스

권영걸 교구의 공공디자인 산책, 권영걸 저, 사미헌

사진 출처_<http://www.benesse-artsite.jp>

발행처 강진군 지역개발과
주 소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탐진로 111
전 화 061-430-3364
팩 스 061-430-3359
발행일 2013년 12월